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왼쪽 끝)이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 대한 유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허 부회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유임 배경과 월드컵 참패에 따른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포스트 아시안컵? 축구협회·홍명보감독 부담만 가중

진퇴양난에 빠진 대한축구협회

일각에선 차기 월드컵까지 임기연장 주장 불구
아시안컵까지 실패면 정몽규체제에도 큰 부담

대한축구협회는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아쉬운 성적을 낸 홍명보(45) 감독이 계속 축구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1무2패, 조 최하위(4위)로 일찌감치 탈락했다. 선수단장으로 대표팀과 동행했던 허정무 축구협회 부회장은 이날 “홍 감독에게 실패를 거울 삼아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에서 잘해주길 당부했다. 계속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감독의 재신임을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온라인이 중심이 된 각종 축구계시판

에선 거센 비난이 일고 있지만, 국내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발표는 달랐다. 최근 이틀(1~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67명을 대상으로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은 “전체 응답자 중 52%가 유임에 찬성했다. 사퇴 의견은 31%였고, 17%는 답변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사실 유임이든, 경질이든 축구협회와 홍 감독은 당분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면이다. 이번 대표팀은 5월 월드컵 체제로 본격 돌입할 때부터 유독 여러 잡음을 낳았다. 특정 선수들을 중용하는 것처럼 비쳐진 ▲최종 엔트리 선발 ‘의리 논란’ ▲플랜 B 없는 전술적 한계 ▲위기관리 실패 등 축구에서 볼거릴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정무 부회장이 나선 3일 기자회견의 핵심 점

점 중 하나로 ‘책임론’이었다. 이에 허 부회장은 “아직 정확한 대회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고, 이어진 ‘(감독이 아니라면) 축구협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선 “이 시점에 당장 누가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분석한 뒤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원인 분석부터 향후 비전까지 준비하겠다. 지금껏 모든 책임을 감독이 안고 그만두는 형태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다. 물론 책임질 건 분명히 져야 한다. 다만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 다음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선 축구협회와 홍 감독이 모두 이번 결정으로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축구협회가 모든 것을 끌어안은 모양새의 유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대

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번 월드컵처럼 터무니없는 성적을 내거나 부진이 거듭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회장 취임 2년째를 맞은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차질 더 부정적인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일단 축구협회는 ‘포스트 아시안컵’에 대해 여론을 남겼다. 일부 축구인들은 “아시안컵을 홍 감독 명예회복의 장으로 삼을 바에야 차라리 1년 남은 계약기간을 늘려 2018러시아월드컵까지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마저 실패하면 홍 감독은 훨씬 더 위축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잔류가 어렵다. 허 부회장은 “단기적으로 9월 인천아시안게임과 내년 아시안컵, 길게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을 내다본다. 급박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1면에서 이어집니다

● 유임 결정하기까지

홍명보 감독은 6월 27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0-1 패)을 마친 뒤 축구협회 홍보관 기술위원 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 홍보 위원장은 허정무 부회장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축구협회의 유임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표팀이 귀국한 6월 30일, 축구협회 집행부가 소집됐다. 유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렵게 홍 감독의 임기를 보장해 대표팀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축구가 우승을 갈구하는 아시안컵까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유임 결정에 한 몫 했다. 홍 감독을 직접 선임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의지도 분명했다. 정 회장은 홍 감독과 2차례 대면해 사퇴를 만류한 뒤 1일 유임을 최종 결정했다.

“책임지는 사람도…장기 로드맵도 없다”

■ 홍명보 유임에 대한 축구계 반응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45) 감독에게 계속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3일 이를 공표했다. 2014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2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홍 감독이 수뇌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축구협회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축구인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프로축구 감독 출신 A는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말처럼, 월드컵은 경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대회다. 그런 무대에서 우리 대표팀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홍 감독이 사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협회는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팀을 관

할하는 기술위원회는 무엇을 했지도 궁금하다. 현 기술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협회 차원에서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로 축구인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홍 감독 체제로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치르는 게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홍 감독이 협회에 사의를 표했다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마친 직후나 귀국한 직후에 인터뷰에서 왜 자신의 의사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드

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차두리(34·FC서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98년에는 왜...??? 혼자서...”라는 글을 올려 미묘한 여론을 남겼다. 이는 자신의 부친인 차범근(61) SBS 해설위원이 1998프랑스월드컵 조별리그 도중 부진한 성적(멕시코전 1-3 패배·네덜란드전 0-5 패배) 때문에 대회 도중 전격 경질됐던 사상 초유의 사건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 @glyong11

판민 | 송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sss23

구석구석
다친고사의
여름 이야기

“너랑 같이 오니까 참 좋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여름 힐링 여행 상품전

강원도 동해안 여름 피서열차 (2박 3일) 229,000원 (여여항공 / 1644-7786)	백두대간 개마령 열곡열차 경북 맛과 멋 기행 (1박) 145,000원 (여여여행사 / 1577-0419)	전주 한옥마을과 마이산 & 구천동계곡, 포도 따기 79,000원 (여여항공 / 1577-0419)	[하남강산] 충북일주 (1박 2일) 139,000원 (여여항공 / 02-2222-2681)	충청남도 제주발달투어 390,000원 (여여항공 / 064-724-6887)
구석구석 올곧은 옛길투어 (2박 3일) 367,000원 (여여항공 / 02-1577-8121)	산악산악지리산 명품힐링여행 (1박 2일) 273,600원 (여여항공 / 061-665-7788)	제주 지질공원 자연힐링투어 380,000원 (여여항공 / 064-724-6887)	한국의 내륙의 정원에서 즐기는 휴가 스노클링 & 해수욕 (1박 2일) 119,000원 (여여항공 / 02-735-8142)	Healing in the Nature (힐링 인 더 네이처) 460,000원 (여여항공 / 064-745-5551)
남도기행 백련사 템플스테이 (2박 3일) 220,000원 (여여항공 / 070-4270-3627)	삼시도 섬여행 힐링체험투어 밤섬해수욕장/삼시도돌레길 (2일) 139,000원 (여여항공 / 1588-1272)	[지리산권 방문의해] 백사골계곡 힐링 바캉스 139,000원 (여여항공 / 02-701-2506)	한려수도에 흠뻑 취하고, 그 아름다운을 취한다 (1박 2일) 315,000원 (여여항공 / 1544-7755)	힐링과 선의 최고봉 함양·산청 104,000원 (여여항공 / 1688-3372)
담양/보성/순천/ 남도 초록사투리 (1박 2일) 129,000원 (여여항공 / 02-2021-2070)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1박 2일) 245,000원 (여여항공 / 02-1577-8121)	[천상의 화원] 공주는 생테리고 골베르 곰배령 트레킹 (1박 2일) 124,000원 (여여항공 / 1577-0419)	해수욕·삼림욕·온천욕 ‘일거 삼욕힐링’ 여름사냥 (천송, 울진, 삼척, 동해) 129,000원 (여여항공 / 02-733-0882)	
	장사도 개마령이산과 구마다스섬 소매물도 산책투어 (2일) 159,000원 (여여항공 / 1588-1272)	풍천장터 & 석정온천 마음의 힐링, 자연의 기적 (2일) 179,000원 (여여항공 / 1577-3700)		

* 일정 및 가격 등 상세정보는 해당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